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세 번째 이야기-



17Page

나 레 이 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과 유대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부 모 1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도 오셨구나!

부 모 2 애야, 어서 가서 예수님께 인사하고 축복의 말씀을 듣자~

어 린 이 네~~

나 레 이 셴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어린 아이는 너무 기뻐어요!

나 레 이 셴 저기 앞에서 예수님이 보였어요! 어린아이는 빨리 뛰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자 제자들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막아 섰어요.

제 자 1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니! 안 돼요! 안 돼!

제 자 2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귀찮게 해서 방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테니 저리 가세요! 저리 가!

어 린 이 나도 예수님을 보고싶어..흑흑

나 레 이 셴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며 말씀 하셨어요.

예 수 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말거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 레 이 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주셨어요.

어 린 이 1 우와~예수님 수염 멋져요!

어 린 이 2 예수님~재미있는 이야기 또 해주세요~

예 수 님 그래 그래~ 하하하하~

나 레 이 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아이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셨답니다.



18Page



19Page



20Page